

마을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가 주민지지에
미치는 영향*
-울주 검단리 마을 중심으로-

Factors Influencing Residents' Support for Tourism
Resources of the Cultural Heritage in the Village
-The Case of Geomdan-Ri Village, Ulju -

손호기** · 김상범*** · 김규호****

Ho GI Son · Sang Bum Kim · Kyu Ho Kim

Abstract

Recently, the interests in historic tourism have been growing. Historic tourism plays a great role in establishing cultural tradition in modern explanation on them, while concerning about it's increasing because of the meaning distortion in the process of restoration. In this context, we should research in case of tourism resource in Geomdan-ri. Historic tourism considering both of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can make interest about historic culture like that of Geomdan-ri. We understand that the making tourist attractions like historic culture resource of Geomdan-ri equipped with unique and educational facilities would give experience the living in prehistoric age for touris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as as

* 본 연구는 2010년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 후 연수과정사업(농촌경관 보전 및 활용기술개발 연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후연구원. e-mail: hogi9267@hanmail.net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e-mail: landlife@korea.kr

**** 경주대학교 관광레저개발학과 교수. e-mail: khkim@gyeongju.ac.kr

follows. It is essential that not only raising the part of positive but also minimizing that of negative based on understanding of resident recognition for effect of society, culture, environment and economics of region by tourist development plan.

주요어(key words) : 관광자원화(Tourism Resources), 주민지지(resident's support), 역사문화자원(Historic Cultural Resources), 보전의식(Conservation Consciousness), 이분형 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

1. 서론

역사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문화의 상품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역사문화를 관광자원화 하여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경제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만일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비영리적으로 관리하는 데만 중점을 둔 나머지 금전적 손실에 무관심하다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문화산업이 경제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Janiskee, 1996).

개발도상국이나 침체된 지역에서 역사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인력개발 계기로 활용하고, 나아가 지역 이미지 제고에 의한 관광객 유치로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문화상품화 활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관광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즉, 지역의 관광활성화 성패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사적 문화자원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관광자원화 및 관광상품화 노력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손호기, 2008). 그러나 우리나라

의 경우 오랜 역사로 풍부한 문화유산과 다양한 지방문화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자원이 관광자원화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전통문화의 피폐와 중앙집권적 현상으로 문화의 획일성을 초래하여 지방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의 상실에 원인이 있지만, 역사문화를 관광에 반영하는 데에도 부진했던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상업화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김규호, 1998; 손호기, 2008). 대도시와 지방도시의 산업화 정책의 급속한 추진과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해 당해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역사문화경관이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현상(김용수, 1991)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을의 문화유적을 현대사회에 부합되도록 재해석하여 일상에 적용하는 계기가 역사문화의 관광자원화로 설정하고, 상업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관광자원화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관광에 의한 편익을 향유하는 인식 정도에 따라 마을의 역사문화유적의 자원변화에 대한 주민 지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관광영향에 대한 주민 지지 정도에 따라 역사문화 자원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를 관광자원화에 반영하는 것이 관광영향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영향에 대한 주민인식을 파악하고, 주민인식 정도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주민의 지지정도를 분석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문화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은 지역문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문화산업은 문화활동을 통해 획득한 생산물의 상당부분을 외부에 판매하여 새로운 소득이 지역경제내로 유입되는 소득효과와 문화산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역내 산업과 관련부문으로부터 조달하여 그 소득이 지역 내 정착될 수 있기 때문에(곽영진 외, 1993) 문화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의 필요성은 지역문화 및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관광수요가 개별화 및 차별화 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지역의 문화자원은 지역별로 개성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의 문화적 요소가 관광개발에 반영될 경우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할 수 있고, 나아가 이용자들에게 다 양한 관광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Nuryanti(1996)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광자원화 방향을 제시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해설은 그 중요성이 방문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역사적 의미가 현재의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창의적인 해설은 문화유산을 재구성(revival)하고, 재창조를 통해 역사적 사실 규명하거나 과거와 교감을 갖게 한다. 따라서 역사문화에 대한 해설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시장과 상호작용 하에 상품의 포장과 생산을 하고, 경험을 전달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거래관계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역사문화관광에 대한 마케팅전략에서 시장세분을 사회 변수적 특성에 의해 구분하는 것보다 관광의 속성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구

성요소 중 한 요소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관광객이 목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역사문화자원의 매력성은 2차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적지 관광(heritage tourism)은 관광객들에게 방문동기를 불러일으키지만, 관광객들의 목적지 결정은 문화유산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유산 관리에 관광시장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유적에 대한 관광자원화는 자원의 보존(conservation), 고급화(gentrification), 개선(rehabilitation), 보수(renovation), 복원(restoration), 재건(reconstruction) 등과 같은 요소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은 문화유적자원에 대한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리를 위한 목표설정과 정당성 확보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또한 역사문화유적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화에 있어서 토지소유 문제, 생활양식과 전통에 대한 변화, 재산권 문제, 관광객과 주민들과의 갈등, 보존을 위한 마을주민들의 생활공간의 파괴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의존적 관계로 접근해야 한다(Nuryanti, 1996).

2.2. 관광영향에 대한 주민인식

관광자원화에 의한 관광영향은 학자들에 따라 접근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광자원화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관광에 의한 지역 또는 국가에 경제적 영향(economic impact)을 미치는 경제적 효과(economic effect)는 긍정적 측면인 편익(benefit)과 부정적 측면의 비용(cost)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사현, 1997). 관광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은 대상지역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고, 지역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가져오는 관광산업의 구조, 관광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대상자와 관광에 의한 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환경적 영향에서는 관광개발의 주요 대상이 자연환경이며, 이는 대상 지역 주민의 삶의 공간을 변화시켜 생활양식과 가치관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부정적영향이 공존한다. 대체로 개발의 규모가 크고, 속도가 빠를수록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 현상으로, 이러한 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발규모와 관광객 수를 소규모로 하고, 개발속도를 지역 실정에 맞추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김사현, 1997: 손호기, 2008). 이러한 접근방법에 의한 관광은 지속적으로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높은 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관광활동의 한계규모를 설정하여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 사회·문화 및 환경적 측면을 상호개발 체계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김규호, 1998).

관광의 사회·문화적 영향의 부정적 요소에 대한 연구결과는 주로 관광객(guests)과 주민(hosts)의 비대칭관계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관광현상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Cohen(1988)의 비판적 연구는 관광과 문화에 대한 효과 및 상관관계에 관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관광에 의한 문화의 상품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Greenwood(1977)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관광에 의한 상업화는 소멸되거나 쇠퇴하는 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관광에 있어서 고유성의 문제는 MacCannell(1973)의 관점과 같이 관광경험에서 실제로 고유성을 경험했는가 하는 문제 보다 Gottlieb(1982)의 접근방식에서처럼 관광객의 관점과 느낌에서 관광경험에 고유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Cohen, 1988: 김규호, 2002).

관광의 문화적 영향에서 부정적 측면으로 비판을 받는 문화의 상품화와 고유성 상실의 문제는 관광객과 수용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때, 관광에서 경제적 의미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관광영향에 의한 지역사회의 상업화를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관광이 지역문화 보존과 활성화에 기여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상업화에 의해 문화적 고유성이 상실되는 것을 단순히 배척하는 것보다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김규호, 2002). 위의 논의와 관련시켜 본다면, 검단리유적과 같은 사적지를 다시 살리는 것은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검단리유적과 같은 선사시대 유적을 복원하여 일반인들이 선사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은 가짜로 만들어진 역사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는 것보다 선사문화 체험에 의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사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관광객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은 문화의 상품화나 고유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선사문화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로 인식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3. 검단리 유적의 현황 및 가치

3.1. 울주 검단리 유적 현황

검단리유적(사적 제332호)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청동기시대 마을 터 가운데 하나이다.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산 6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울주 검단리유적의 역사문화적 고증을 위하여 발굴조사보고서와 문헌자료, 관리실태, 현장조사

등을 조사하면, 현재 유적 안내표지판 1개와 유적지 입구에 유적지 해설판 1개, 이정표 2개소로 배치되어있으며, 발굴조사 후 현장보존을 위하여 발굴유구를 비닐로 덮고 그 위에 다시 모래와 흙을 덮어 다시 매장하여 그 형태를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검단리 유적의 관리실태 및 계획으로는 울주군 내부 자료에 의하면, 식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1년/분기별로 제초작업 시행과 답압 억제를 위한 발굴지역 통제와 관람용 통로와 유적사이의 녹지, 안전웬스설치 등으로 영역의 기능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림 1〉 검단리 유적지(발굴당시)



〈그림 2〉 안내표지판

3.2. 울주 검단리 유적의 가치

1990년 발굴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발 104~123m 높이 구릉 중심부에 세워진 마을은 전체가 방어용 도랑으로 둘러싸여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마을의 형태는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주요 형태로는 V자꼴로 판 도랑의 현재 너비는 50~200cm, 깊이는 20~150cm 이나, 본래는 더 깊고 넓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터93기, 움터3기, 돌레도랑1기, 띠모양의 유구2기, 고인돌 3기, 토기로는 향아리모양 토기3점을 포함한 7종 92점, 석기로는 돌촉 39점, 반달꼴돌칼 9점 등 9종 167점이 조사되었다. 이로 보아 마을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으

며, 배도 짚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을은 방어 시설인 타원형의 환호를 중심으로 내부와 외부에 주거지가 분포된 상태로 형성되어 있고, 주거지 사이에는 광장으로 추정되는 공지와 제사 시설로 보이는 구(溝)가 분포하고 있으며 무덤은 주거지역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별도로 위치하고 있다.

〈표 2〉 검단리 유적 문헌의 가치

구분		주요내용
검단리 유적 특징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 부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 된 청동기시대 대규모 취락유적지 · 현)전체유적을 땅속에 묻힌 상태로 보존 · 주거형태 : 정방형 4주식, 장방형 6주식의 주혈로 구성, 내부는 난방과 취사 · 환호, 수혈주거지 92동, 굴립주거건물지 1동, 구13기, 수혈3기, 무덤3기 등
	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기 451점, 어망추 및 방추차 등의 토제품 115점 등, 석기류 230점 등 총 796점 출토
환호 유적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면형태 : 장타원형, 전체취락을 둘러싸고 있음, 입구는 2개소(남, 북) · 규모 : 총연장길이 298m, 장경 118m, 단경 70m, 내부 면적 5,974㎡ · 단면 : 'V', 'U'자 모양, 가장 깊은 길이 1.5m, 가장 넓은 길이 2m · 국내 환호유적 20여개(남한), 일본 506개소, 중국 88개소(위벽취락포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호용어 : 환호(環濠), 환구(環溝), 환호(環壕), 호구(壕溝)등 · 취락의 주위에 일종의 도랑을 파서 돌리는 시설물, 형태적으로 다양하여 그 범주를 정하기 어려움, 단독설치 및 2-3중 겹(중복)의 형태 또는 목재나 토루와 결합되는 경우도 있음
	역사적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환호 안쪽의 공간이 방목지로 이용되었거나 의례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던 공간 등으로 추정하며, 취락, 창고, 축사, 제의장소 또는 공공집회소와 같은 특별 시설물이든 공간이든 일정 범위를 구획하여 공간을 분리시켜 경계 지우는 방식의 도랑을 판 시설 또는 외부로의 방어, 특정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분하는 경계의 표시 등으로 해석함

자료: 울주군 웅촌면. (2002). 웅촌면지(熊村面誌). pp.718~732

환호는 길이가 약 400m에 이르며 남북 양쪽에 1개씩의 입구가 나 있으며,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이며 총연장 298m, 장경118m, 단경70m,

내부면적 5,974m²(약1,850평)이다. 검단리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환호집락이 전면적으로 발굴되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다.

4. 실증분석

4.1. 분석모형 설정

문화유적을 이용하여 관광자원의 원형을 변화시키는 관광자원화 개발에 대한 보전의식의 분석모형은 식(1)과 같이 이분형 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모형의 설정은 관광자원의 이용에 있어 변형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 또는 반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 보전의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현재 검단리 유적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이 원형보전과 관광자원화를 통한 이용측면의 개발로 양립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단리 유적에 “검단리선사문화공원(가칭)”을 조성하여 선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찬성(0) 또는 반대(1) 의견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는 관광영향에 대한 주민인식으로 설정하였다. 관광영향에 대한 주민인식은 일반적으로 경제, 사회·문화 및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 및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규호&손호기, 2006). 여기서 P_i 는 관광자원 원형변형에 대해 반대할 확률, 즉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고, $1 - P_i$ 는 찬성할 확률, 즉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유적자원 원형변형에 대해 찬성할 확률에 대비하여 반대할 확률의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식(1)에 자연로그를 취하

면 선형결합과 Odds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수식을 갖는다. 즉 식(2)는 로짓모델에서 자연로그를 취하고 있는 Odds의 형태로 비선형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선형결합형태이다(이성우외, 2005).

$$\frac{P_i}{1-P_i} = \frac{\text{Prob}(y=1)}{1-\text{Prob}(y=1)} = \frac{1+e^z}{1+e^{-z}} \quad (\text{단, } Z = \sum_{k=1}^K \beta_k x_k) \quad (1)$$

$$\ln\left(\frac{P(y=1)}{1-P(y=1)}\right) = \sum_{k=1}^K \beta_k x_k \quad (2)$$

4.2. 자료분석의 개요

검단리 마을주민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검단리유적이 역사적 가치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환호집락이 발견된 곳으로, 청동기 시대의 마을 단위 유적으로 중국대륙에서 일본 열도로 문화루트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적지로 고고학의 대전환점을 이룬 대 발견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의 농경문화가 한반도 남부의 청동기 문화에서 이식되었다는 확고한 증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안재호, 2003). 이러한 점에서 검단리유적은 관광자원으로서 내국인의 선사문화 학습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서 매력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마을주민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설문조사결과 검색과정을 거쳐 유효표본을 242부로 최종확정하였고, 자료분석은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14.0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변수	구분	분포(명,%)
성 별	남	129(53.3)
	여	113(46.7)
	계	242(100.0)
연 령	20미만	2(0.8)
	20~29	71(29.3)
	30~39	71(29.3)
	40~49	68(28.1)
	50~59	29(12.1)
	60이상	1(0.4)
	계	242(100.0)
월소득	100미만	50(20.6)
	100~200미만	81(33.5)
	200~300미만	82(33.9)
	300~400미만	13(5.4)
	400이상	16(6.6)
	계	242(100.0)
직 업	농림수산업	7(2.9)
	자영업	46(19.0)
	사무행정직	33(13.6)
	생산기술직	22(9.1)
	판매서비스직	26(10.7)
	전문직	34(14.0)
	주부	28(11.6)
	학생	32(13.2)
	기타	14(5.9)
	계	242(100.0)
거 주 기 간	10년 이하	52(21.5)
	11~20	53(21.9)
	21~30	62(25.6)
	31~40	45(18.6)
	41년 이상	30(12.4)
	계	242(100.0)

분석결과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성별은 남성(53.3%)이 여성(46.7%)보다 다소 많았으며, 연령은 20~29세, 30~39세(29.3%), 40~49세(28.1%)의 순으로 20, 30대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지역주민의 거주기간은 11년 이상이 전체 68.5%로 나갔고, 응답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22.1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광영향에 대한 주민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표 4>와 같다. <표 4>에서 관광이 지역의 경제, 사회·문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인식과 관련한 24개 평가문항 중 21개 변수가 6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6개 요인 중 관광영향을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요인(FACT 2)의 평가변수 평균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요인(FACT 5)의 평가변수 평균 3.16,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요인(FACT 3)의 평가변수 평균 3.01으로 긍정적 요인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요인(FACT 4)의 평가변수 평균은 2.69가 가장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관광영향에 대한 주민인식이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검단리마을 주민들의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이 전체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검단리 유적의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인식의 요인분석¹⁾

요인명	평가 변수	요인적재량 ²⁾	인식도 평균 ³⁾
FACT 1 환경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 (신뢰성계수 $\alpha=0.86$)	- 자연환경훼손	0.935	2.83
	- 유적지훼손	0.883	2.83
	- 오염증가	0.842	3.00
			2.83
FACT 2 환경적 측면의 긍정적 요인 (신뢰성계수 $\alpha=0.83$)	- 지역경관개선	0.880	3.31
	- 생활환경개선	0.861	3.21
	- 지역이미지개선	0.847	3.60
			3.31
FACT 3 사회·문화적 측면의 긍정적 요인 (신뢰성계수 $\alpha=0.88$)	- 다양한 볼거리제공	0.865	3.01
	- 지역문화발전에 기여	0.850	3.31
	- 문화활동증진	0.836	3.19
	- 삶의 질 향상	0.780	3.27
	-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	0.774	3.46
			3.01
FACT 4 사회·문화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 (5.4%, $\alpha=0.63$)	- 주민간 갈등유발	0.866	2.69
	- 교통혼잡	0.853	3.00
	- 범죄발생	0.774	2.64
			2.69
FACT 5 경제적 측면의 긍정적 요인 (신뢰성계수 $\alpha=0.78$)	- 수입증가	0.856	3.16
	- 고용창출	0.820	3.23
	- 지역경제활성화	0.814	3.36
	- 경제교류활발	0.813	3.14
	- 투자증가	0.673	3.12
			3.16
FACT 6 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 (신뢰성계수 $\alpha=0.67$)	- 소비성향상승	0.882	2.86
	- 물가상승	0.822	3.19
			2.86

주1) 요인분석은 SPSS for Window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함
 2)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0.5이상인 변수들을 나타냄
 3)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보통, 5점: 매우 그렇다(5점 척도).

4.3. 분석결과 및 해석

울주 검단리 유적 일원을 “선사문화공원(가칭)”하기 각종 관광시설 및 공간개발에 대해 지역주민 242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에 71.5%, 반대 28.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문화유적자원 원형 변화에 대한 찬성이 높은 것은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체로 관광영향에 대한 주민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결과와 관련이 있다. 특히 조상대상 지역이 정족산(무제치늪)과 인접한 청정지역이지만, 1차 산업인 농업이 주요산업이라 개발의 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검단리유적 발굴 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침체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상대적으로 마을주민들은 환경개선이나 지역경제에 대한 개발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광영향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찬성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관광영향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원형을 변화시키는 개발행위에 대한 지지율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식(1)에서 제시한 이분형 로짓모형에 의해 분석을 하였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관광영향에 대한 찬성(0)과 반대(1)로 하였고, 설명변수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은 관광영향에 대한 주민인식(F1~F6)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광영향에 대한 마을주민의 인식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측면의 부정적 인식(F4)과 경제적 측면의 긍정적 인식(F5)과 부정적 인식(F6)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검단리유적 관광자원화회의 개발행위에 대한 찬성, 반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광에 대해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F2)하는 경우에는 관광에 찬성하는 비율보다 반대할 비율, 즉 반대 Odds가 44.4%로 나타난 반면에 부정적으로 인식(F1)한 경우에는 관광에 대한 반대

Odds가 159.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광에 대한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마을주민들이 관광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보다 반대할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광에 초래될 수 있는 ‘자연환경훼손’, ‘유적지훼손’, ‘오염증가’등과 같은 환경적 측면의 부정적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점단리유적과 같은 문화유적자원에 대한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표 5〉 관광자원화 찬성유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Wald	Exp(β)	유의확률
관광자원 화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상수	-1.463	45.257	0.231	0.000
	환경적 측면의 부정적 인식(F1)	0.464	3.661	1.590	0.056
	환경적 측면의 긍정적 인식(F2)	-0.811	10.734	0.444	0.001
	사회·문화적 측면의 긍정적 인식(F3)	-0.759	6.052	0.468	0.014
	사회·문화적 측면의 부정적 인식(F4)	0.041	0.028	1.042	0.867
	경제적 측면의 긍정적 인식(F5)	-0.372	1.862	0.690	0.172
	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인식(F6)	0.154	0.570	1.167	0.450

단, $\chi^2 : 76.153, p < 0.000, -2\text{LogL} : 210.627$

한편 이분형 로짓모형에서 임의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Prob(y=1))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Prob(y=0)) 2가지만 고려할 경우 사건확률 형태는 식(3)과 같이 표현하여 설명변수 집합의 확률을 예측할 수 있다.

$$\text{Prob}(y = 1) = \frac{e^{\sum_{k=1}^K \beta_k \chi_k}}{1 + e^{\sum_{k=1}^K \beta_k \chi_k}} \quad (3)$$

식(3)에 <표 3>에 제시된 회귀분석결과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Prob(y = 1) = \frac{e^{-1.463constant + 0.464F_1 - 0.811F_2 - 0.759F_3}}{1 + e^{-1.463constant + 0.464F_1 - 0.811F_2 - 0.759F_3}} \quad (4)$$

식(4)에 부정적으로 인식할 경우는 1, 긍정적으로 인식할 경우에는 0을 대입하면, 환경적 측면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반대할 확률은 26.9%이다.¹⁾ 환경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을 동시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관광을 반대할 확률은 4.6%로 나타나고 있다.²⁾

따라서 관광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보다 6배 정도의 반대할 확률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참여를 통해 관광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을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이 성립될 때 성공적인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문화적 전통을 확립하는데 관광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문화유적 자원에 대한

$$1) Prob(y = 1) = \frac{e^{-1.463 \times 1 + 0.464 \times 1 - 0.811 \times 0 - 0.759 \times 0}}{1 + e^{-1.463 \times 1 + 0.464 \times 1 - 0.811 \times 0 - 0.759 \times 0}} = 0.269$$

$$2) Prob(y = 1) = \frac{e^{-1.463 \times 1 + 0.464 \times 0 - 0.811 \times 1 - 0.759 \times 1}}{1 + e^{-1.463 \times 1 + 0.464 \times 0 - 0.811 \times 1 - 0.759 \times 1}} = 0.046$$

마을주민인식이 관광에 있어 개발과 보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관광영향에 대한 주민 인식을 토대로 울주 검단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관광이 지역의 경제, 사회·문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 인식과 관련한 24개 평가문항 중 21개 변수가 6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관광영향이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요인(FACT 2) 평균값 3.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의 긍정적 인식(FACT 5) 평균값 3.16점, 사회·문화적 측면의 긍정적 인식(FACT 3) 평균값 3.01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울주 검단리유적이 관광영향에 대한 주민 인식은 환경적 측면이 우선적으로 인식되었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대부분이 관광자원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광영향의 부정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측면(FACT 6=평균값 2.86점)이 가장 많이 인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적 측면(FACT 1=평균값 2.83점), 사회·문화적 측면(FACT 6=평균값 2.69점)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주 검단리 유적의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검단리유적 인근을 정비하여 새로운 여가공간의 장으로 형성하고자 검단리 선사문화공원(가칭)을 조성코자 지역주민 242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 71.5%, 반대 28.5%로 나타나 관광자원화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거의 2.5배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울주 검단리 마을 주민들의 문화유적 자원에 있어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이 사회·문화적 측면과 환경 및 경제적 측면의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강한 것으로, 최근 검단리 유적의 관광자원화 방안과 학술적 가치의 고증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등 울주군에서는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을 위한 노력과 마을주민들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관광에 반대하는 비

율이 찬성하는 비율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지만, 마을주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대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유적 자원에 있어 관광에 대한 주민 인식의 개발과 보전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찬성과 반대를 종속변수로 하고, 문화유적 자원에 있어 관광영향에 대한 주민 인식을 독립변수로 한 이분형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로짓회귀모형 분석 결과, 환경적 측면에서 역사문화 자원에 있어 관광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반대할 비율이 26.9%, 환경적 측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관광을 반대할 확률은 4.6%로 나타나 문화유적 자원에 있어 관광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은 긍정적으로 인식보다 6배 이상의 반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을주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의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관광이 지역의 경제, 사회·문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 인식의 요인을 파악하여 긍정적 요소는 부각시키고, 부정적 요소는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특히 관광영향이 주민 간 갈등유발, 교통혼잡, 범죄발생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유적지 훼손, 자연환경훼손, 오염증가 등과 같은 환경적 측면의 부정적 인식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관광자원화의 계획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검단리 유적과 같은 문화유적 자원에 대한 관광자원화는 역사적 원형탐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관광자원화에 대한 접근방법 개선에서 그 대안을 찾아야한다. 역사적 원형탐구의 필요성은 선사문화가 생성되고 발전되어 온 과정과 그 본질이 관광객에게 전달될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유적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지를 조성할 경우 다양하고 개성 있는 시설 및 공간구성과 여행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단리 유적과 같이 문화유적을 관광자원화 하는데 있어서 상업적 요소를 지나치게 배척하는 것보다 이러한 매개체가 역사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선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관광이 지니고 있는 학습기능(edutainment)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참고 문헌 ■

- 곽영진 외. (1993). *예술경제란 무엇인가?*, 신구미디어.
- 김용수. (1991). 전통경관의 현대적 의미와 활용(기획논설), *한국조경학회*, 19(2), 107-109.
- 김규호. (1998). 문화자원을 이용한 지역관광개발: 단양지역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2(2), 7-13.
- 김규호. (2002). 관광의 문화적 영향과 유교문화자원, *관광학연구*, 26(2), 11-29.
- 김규호, & 손호기. (2006).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인식과 관광자원 보전의식의 관계, *관광학논총*, 7, 1-17.
- 김사현. (1997). *관광경제학신론*, 일신사.
- 안재호. (2003). *검단리 유적의 성격과 가치*. 울주 검단리 선사유적 관광자원화 학술 심포지엄. 울주문화원.
- 이청규. (2003). *울산 검단리 유적 복원을 위한 모델제시*, 울주검단리 선사유적 관광자원화 학술 심포지엄. 울주문화원.
- 이성우외. (2005). *로짓·프라빗모형 응용*. 박영사.
- 울산광역시. (2004). *울산의 문화재*. 울산광역시.
- 울주군 응촌면. (2002). *응촌면지(熊村面誌)*. 울주군 응촌면.
- 손호기, 김용수, & 김규호. (2007).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인식이 개발과 보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통조경학회*, 25(3), 106-114.
- 손호기. (2008). 문화경관 유형에 따른 관광영향과 보전의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Cohen, Erik. (1988). Authenticity & Commoditization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3), 371-386.
- Janiskee, R. L. (1996). Historic Houses and Special Even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3(2), 398-414.
- Nuryanti, Wiendu. (1996). Heritage and Postmoder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2), 249-260.



논문투고일: 2010. 5. 15

1차수정일: 2010. 6. 9

게재확정일: 2010. 6. 18